

Journal of Military History
2024, No. 132, pp.401-419
<https://doi.org/10.29212/mh.2024..132.401>
Printed in the Republic of Korea

[자료소개]

「간도독립군약사」(間島獨立軍略史)

- 한 독립군 지휘관의 기록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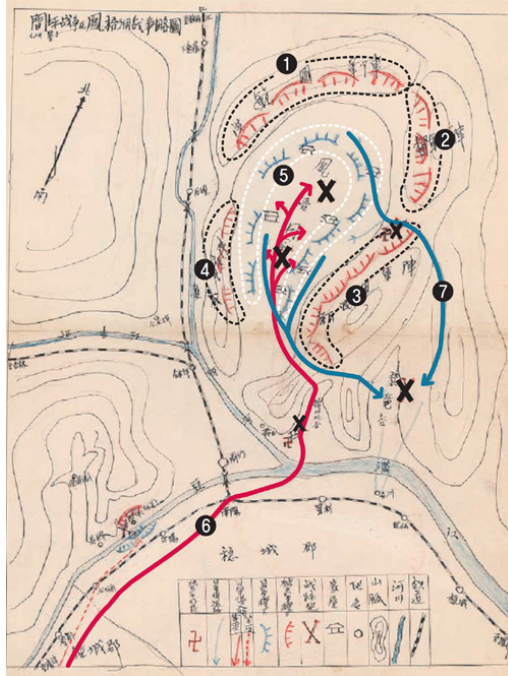
김경준 | 한양대학교 사학과 박사과정

- 목 차
1. 머리말: 70년 만에 공개된 자료
 2. 「간도독립군약사」는 어떤 자료인가?
 3. 새롭게 밝혀진 사실들
 4. 몇 가지 문제점
 5. 맺음말: 자료의 활용 가치에 대해

1. 머리말: 70년 만에 공개된 자료

2015년 8월 10일 제70주년 광복절을 며칠 앞두고 독립운동사 연구자들을 흥분하게 만들 자료가 세상에 공개됐다. 바로 1920년 6월 7일 봉오동 전투에 참전했던 독립운동가 박승길(朴昇吉: 1893~1960)이 직접 그린 ‘전투도’였다.¹⁾

〈그림 1: 박승길이 그린 ‘봉오동 전투도’〉 (출처: 동아일보)



1) “참전 독립군이 그린 봉오동 전투圖 첫 공개”, 『동아일보』(2015년 8월 11일).

전투도는 봉오동 전투 당시 일본군 부대의 침투로와 도주로, 일본군을 포위한 독립군 부대들(홍범도군·독군부·신민단·의군부)의 위치 등을 상세하게 묘사하고 있었다. 자료 부족에 시달리던 봉오동 전투 연구자들에게는 가뭄에 단비 같은 소식이었을 것이다.

해당 전투도는 해방 직후 박승길이 저술했던 「간도독립군약사」(間島獨立軍略史)에 수록된 것으로, 대한민국 임시정부 임시의정원 의원 및 독립신문사 사장 등을 역임한 독립운동가 김승학(金承學: 1881~1964)이 보관해왔던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다 지난 2015년 김승학의 증손인 김병기 박사가 한국학중앙연구원 장서각에 자료를 기탁하면서 언론에 처음 공개됐다.

당시 언론은 전투도에만 초점을 맞췄을 뿐, 「간도독립군약사」라는 자료 자체에 대해서는 주목하질 않았다. 따라서 그 내용 역시 오랜 시간 베일에 가려져 있었다. 「간도독립군약사」라는 자료가 있다는 사실이 알려진 이후, 10년 가까운 시간이 흘렀지만, 여전히 해당 자료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연구자가 드문 것 같다. 최근에는 박환이 독립군의 무기 구입 루트를 설명함에 있어 해당 자료의 일부를 인용하는 정도에 그친 것으로 확인된다.²⁾

필자는 2023년 봉오동 전투 당시 주요 지휘관 중 한 명이었던 최진동(崔振東)의 항일무장투쟁에 관한 논문을 쓰면서 해당 자료를 적극적으로 활용한 바 있다.³⁾ 해당 자료를 분석하는 과정에서 기존 연구와 배치되거나 기존 연구의 공백을 보완할 수 있는 사실들을 새롭게 발견했다.

이에 여전히 「간도독립군약사」의 존재를 잘 모르는 연구자들에게 자료의 존재를 환기시키는 차원에서, 필자가 해당 자료를 분석하며 알게 된 몇 가지 사실들을 소개해보고자 한다.

2) 박환, 『독립군과 무기』, 선인, 2020.

3) 김경준, 「1920년 북간도에서의 최진동의 항일무장투쟁」, 『동북아역사논총』 82, 동북아역사재단, 2023.

2. 「간도독립군약사」는 어떤 자료인가?

「간도독립군약사」는 해방 당시 생존해 있던 박승길이 구술하고 박원일(朴元一)이 대필하는 방식으로 작성됐다. 정식으로 발행되지 않아 정확한 저술연도는 알 수 없다. 본문은 총 32쪽이고 크기는 18.3x26.7cm이다. 펜글씨로 쓴 필사본(筆寫本)이며 목차는 번호 없이 소제목으로 나열된 형태이다.⁴⁾

저자 박승길은 1893년 2월 2일 함경북도 온성군(穩城郡) 영와면(永瓦面) 송북리(松北里)에서 태어났다. 본관은 반남(潘南)이며, 호는 철마(鐵馬)이다. 1919년 북간도로 망명하여 3.1운동에 참여했고,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에서 기독교인을 중심으로 조직된 대한신민단(大韓新民團)에 가입했다. 신민단은 왕청현(汪淸縣)과 훈춘현(琿春縣)에 각각 지부를 설치했는데, 박승길은 왕청현 석현지부군(石峴支部軍)의 사령관 겸 참모장을 맡았다. 그는 1920년 6월 4일 봉오동 전투의 서막이라고 할 수 있는 새불 전투(삼둔자 전투)를 이끌었고, 7일 봉오동 전투 당시에도 동쪽 췌코봉 고지에 진을 치고 최진동·홍범도(洪範圖) 등의 독립군 부대들과 연합하여 일본군 토벌대를 격퇴했다.⁵⁾

「간도독립군약사」는 김병기 박사가 한국학중앙연구원 장서각에 기탁한 『희산 유품자료』에 포함돼 있다.⁶⁾ 한국학중앙연구원에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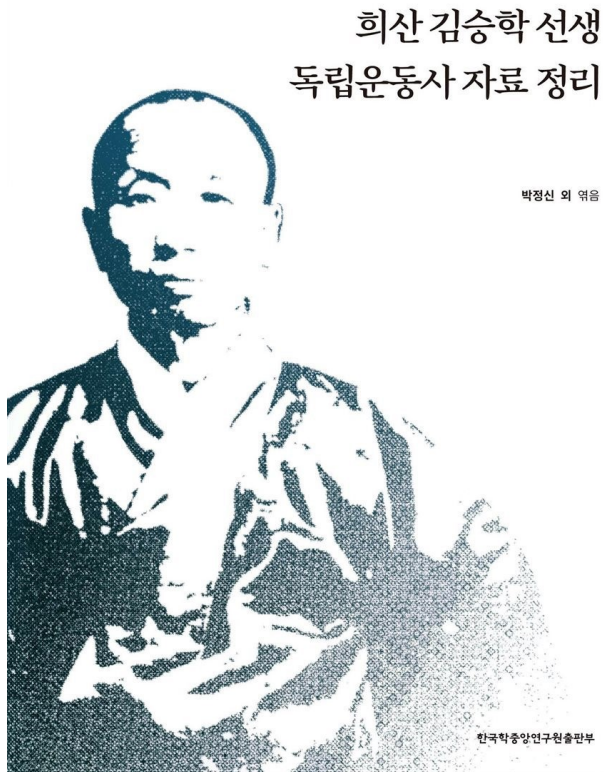
4) 박승길 구술·박원일 대필, 「간도독립군약사」, 『희산 김승학 선생 독립운동사 자료 정리』, 한국학중앙연구원 출판부, 2018: 89.

5) 박승길 구술·박원일 대필, 「간도독립군약사」, 『희산 김승학 선생 독립운동사 자료 정리』, 한국학중앙연구원 출판부(2018): 94; 『한국독립운동인명사전』, 독립기념관 한국독립운동사연구소.

6) 박정신 외 엮음, 『희산 김승학 선생 독립운동사 자료 정리』, 한국학중앙연구원 출판

는 2018년 해당 자료들의 목록 및 해제를 『희산 김승학 선생 독립운동사 자료 정리』라는 이름의 책자(비매품)로 발간했는데, 해당 책자를 통해 「간도독립군약사」가 탈초본으로 대중에 처음 공개됐다.

〈그림 2: 『희산 김승학 선생 독립운동사 자료 정리』 표지〉



「간도독립군약사」는 신민단(新民團)·국민회(國民會)·북로군정서(北路軍政署)·한민회(韓民會/軍民會)·독군부(督軍府/都督府)·의군부(義軍府/義軍團)·독립군 무기구입 루트의 목차로 구성되어 있다. 목차 구성에서 알 수 있듯이 북간도 지역에서 활동하던 주요 독립군 단체들의 약력을 소개하는 방식으로 정리되어 있다.

저자인 박승길이 신민단의 핵심 관계자였기에 신민단에 대한 서술 비중이 압도적으로 많은 편이다. 신민단은 3.1운동 이후 주로 성리교(聖理敎)⁷⁾ 신자들이 조직한 독립운동 단체이다. 「간도독립군약사」에서는 본부를 비롯하여 왕청·훈춘·연길·화룡·러시아 지역 지부별 책임자들의 명단이 상세히 나열되어 있다. 한편 박승길이 이끄는 신민단 석현지부군이 러시아 멘세비키 연해주당수이며 총사령관인 세브첸코와 접촉하여 무기를 구입하는 과정, 그리고 새불 전투에서 봉오동 전투에 이르는 일련의 독립전쟁 전개 과정을 상세히 서술하고 있다. 특히 봉오동 전투 당시 아군의 피해에 대해 전사 7명(신민단 5명+홍범도 부대 2명), 부상 5명, 민간인 9명 사망 등으로 기록하고 있어, 당시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공식 발표⁸⁾와도 차이가 난다. 이는 앞으로 봉오동 전투의 전과 및 피해 상황 등을 분석할 때 재검토의 여지가 있음을 보여준다 하겠다.

다음으로 국민회는 김약연(金躍淵) 목사가 주축이 되어 1919년 3월 12일 간도 지역 기독교 신도들이 조직한 단체로, 용정(龍井) 일대를 근거지로 삼아 주로 교육 사업 위주로 활동했다고 소개하고 있다. 또 홍범도의 대한독립군을 국민회 직속 군단으로 맞

7) 신민단 본부단장 김규면(金圭冕: 1881~1969)이 함경도와 만주, 연해주 일대의 교인들과 추종 세력을 기반으로 조직한 기독교의 분파.

8) 임시정부는 봉오동 전투 당시 아군의 피해 상황에 대해 전사 4명, 중상 2명으로 보도했다(“北嶽島에 在한 我獨立軍의 戰鬪情報”, 『독립신문』(1920년 12월 25일)).

이한 뒤, 지방경호대와 연합하게 되는 과정을 서술하고 있다.

군정서(북로군정서)는 대종교(大倥敎) 인사들이 주축이 되어 조직한 단체로 주요 간부는 총재 서일(徐一), 사령관 김좌진(金佐鎭), 참모장 이장녕(李章寧), 사단장 김규식(金奎植) 등으로 이뤄졌다. 박승길의 기억에 따르면 병력 500명, 보총 500정, 권총 40정, 기관총 3문, 탄환 100만 발, 군자금 10만 원을 보유하고 있었고, 청산리 전역에서 일본군 토벌대를 상대로 큰 승리를 거뒀다.

한민회(군민회)는 기독교 인사들이 조직한 단체로 훈춘(琿春)에 본거지를 두었으며, 80여개의 지부를 거느렸다. 회장 황병길(黃炳吉), 사령관 이명순(李明淳)으로 독립군 700여 명, 보총 700정, 기관총 4문을 갖고 있었다. 특기할 만한 사실은 훈춘사건 당시 훈춘 일본 영사관을 습격한 것은 한국 독립군의 소행이라는 사실을 증언했다고 한다.

최진동 삼형제가 주축이 되어 조직한 독군부(도독부)에 대해서는 독립군 병력이 500여 명에 보총 500정, 군복은 중국군과 같은 빛깔로 회색복을 착용했다고 한다.

다음으로 의군부(의군단)는 유학을 신봉하는 공교회(孔敎會) 회원들로 구성된 단체로 3.1운동 직후 이범윤(李範允)을 총재로 추대하여 조직됐다. 본거지를 연길현 명월구(明月溝) 혹은 의란구(依蘭溝)에 두고 있었으며, 300여 명의 무장독립군을 보유하고 있었다고 전한다. 특히 봉오동 전투에도 참전하여 독립군의 승리에 기여했음을 증언하고 있다.

마지막장인 ‘독립군 무기구입 루트’에서는 신민단 단장 김규면의 노력에 의해 러시아 혁명군으로부터 무가(無價)로 무기를 지원 받은 사실과, 북로군정서가 체코군으로부터 무기를 구입한 사실 등을 언급하고 있어 당시 독립군들이 어떤 방식으로 무기

를 구할 수 있었는지 파악이 가능하다.

이처럼 각 단체별로 성립연도와 구성인원, 행적들을 정리해뒀다는 점에서, 「간도독립군약사」는 각 단체의 성격 및 행적을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되는 자료이다. 다만 약사(略史)라는 제목에서 알 수 있다시피, 북간도에서 활동했던 각 무장독립운동 단체들의 내력을 개설적으로만 정리했다는 점에서 아쉬움이 남는다.

〈그림 3: 「간도독립군약사」 탈초본 이미지〉

2) 「간도독립군약사」

【해제】

- 서 명 間島獨立軍略史
- 저자사항 朴昇吉 구술, 朴元一 대필
- 발행사항 미상
- 형태사항 본문 32쪽, 18.3×26.7cm
- 판 사 항 筆寫本(펜글씨)
- 목차사항 목차 번호 없이 소재목 나열
 間島獨立軍略史
 新民團 1쪽
 國民會 15쪽
 軍政署 19쪽
 韓民會(軍民會) 23쪽
 督軍府(도독부) 25쪽
 義軍府(義軍團) 27쪽
 독립군 무기구입 루트 31쪽

【개설】

「간도독립군약사(間島獨立軍略史)」는 봉오동전투에 참가한 독립운동단체의 활동상을 서술한 사료로서 그 가치가 매우 크다. 봉오동전투는 독립군들이 연합하여 일본과 싸운 첫 전투이자 크게 이긴 전투다. 독립운동사에 이보록 중요한 봉오동전투의 연구는 그동안 일제의 기록에 의존한 채 진행되었다. 이러한 점에서 「간도독립군약사」는 일제의 기록에 의존해왔던 기왕의 연구 한계를 극복할 소중한 자료다. 「간도독립군약사」로 우리의 시각에서 봉오동전투를 파악할 수 있게 되었다. 봉오동전투에 직접 참가한 신민부 왕청현 석현 지부군 사령관 겸 참모장 박승길 선생이 전투 정황을 상세하게 기록해놓은 덕분이다.

1919년 3·1만세 운동 이후 간도에서만 수백 개소가 넘는 독립운동단체가 생겨났다. 「간도독립군약사」는 그중에서 봉오동전투에 참여하였던 단체를 중심으로 각 단체 설립

3. 새롭게 밝혀진 사실들

그럼에도 「간도독립군약사」는 기존 연구의 한계를 극복하거나 재검토의 필요성을 고민하게 하는 새로운 사실들을 담고 있다.

첫 번째로 신민단의 창립 시기와 인적 구성에 관한 사실이다. 신용하는 신민단의 창립 시기를 1919년 3월 12일로 추정한 바 있다.⁹⁾ 이는 신민단이 공포한 선포문·현장·선서문 등의 선포 날짜가 1919년 3월 12일로 되어있는 까닭이다. 그런데 이와 관련해 최근 오세호는 신민단이 1918년 11월 이전에 설립되었던 것으로 파악했다. 이는 러시아에서 활동한 항일혁명가 이인섭(李仁燮)이 쓴 수기에서 1918년 11월 한인사회당 비밀회의 당시 신민단이 존재했다는 기록을 따른 것이다. 이를 근거로 오세호는 신민단이 3.1운동에 앞서 러시아 볼셰비키 혁명의 과정에서 준비된 무장투쟁의 역량을 결집해 창설됐다고 분석하고 있다.¹⁰⁾

그러나 「간도독립군약사」는 신민단의 창립 시기를 “3.1독립의 선언이 발표되자 뜻 있는 인사, 주로 聖理敎人들이 조국독립을 위한 단체로서 신민단이란 단체를 露領 海參威에서 조직하고…”라고 하여 그 창립 시기를 3.1운동 이후로 분명히 언급하고 있다. 이인섭 역시 1918년 한인사회당 창립의 주역으로 활동하는 등 일찍부터 러시아 지역 한인 사회에서 활약했으므로 그가 남긴 회고의 신빙성을 무시할 수는 없다. 그러나 양측의 주장이

9) 신용하, 「大韓新民團 獨立軍의 研究」, 『동양학』18, 단국대학교 동양학연구원, 1988: 222.

10) 오세호, 「白秋 金圭冕(1881~1969)의 독립운동 연구」, 국민대학교 국사학과 박사학위논문, 2021: 45.

배치된다면 신민단의 핵심 관계자인 박승길의 회고에 더 무게가 실릴 수밖에 없다. 더군다나 기존에 발표된 선언서와 강령 역시 1919년 3월 12일에 발표됐으므로, 오세호의 ‘1918년 창립설’은 재검토의 여지가 있다고 하겠다.

또한 신민단에 관한 최신 연구라고 할 수 있는 오세호의 연구에서는 1919년 5월, 7월, 8월에 각각 작성된 일제의 첩보 자료에 의거하여 신민단 초기 주요 간부진의 명단을 정리했다.¹¹⁾ 그런데 박승길의 「간도독립군약사」에는 본부 조직원으로 부단장 한광택(韓光澤), 총무부장 최상진(崔相鎭), 외무부장 김덕보(金德甫), 조직부장 김연보(金連甫), 선전부장 김봉서(金奉瑞), 통신부장 한우근(韓宇根) 등 기존 연구에서 확인되지 않는 새로운 이름들이 대거 등장한다. 뿐만 아니라 왕청·훈춘·연길·화룡·러시아 지역 지부별 책임자들의 명단이 소개되고 있는데, 이는 향후 신민단의 조직 구성 분석을 새롭게 시도할 필요가 있음을 알려준다. 한편 위에서 언급한 6명 모두 현재 독립유공자 명단에 포함돼 있지 않는 것으로 확인된다. 따라서 국가보훈부의 독립유공자 서훈 작업에 있어서도 반드시 참고해야 할 자료라 하겠다.

두 번째로 1920년 6월 4일 새불(삼둔자) 전투와 관련된 사실이다. 우선 새불 전투에 대해 간략하게 살펴보도록 하자. 당시 신민단군 사령관이었던 박승길은 군자금 모금을 위해 두만강 건너 온성 지역에 신민단 모연대원들을 파견했다. 그런데 일부가 몰지각한 행위를 했다 하여 박승길이 이를 진압할 목적으로 부하 20명을 데리고 오전 5시경 새불(間坪)¹²⁾에 도착했다. 이때 두만

11) 오세호, 앞의 논문(2021): 47-48.

12) 삼둔자(三屯子)라고도 함. 두만강변 마패하(馬牌下) 마을, 도문(圖門)에서 10리 지점으로 두만강을 사이에 두고 맞은편에 강양(江陽)이 자리하고 있음(박승길 구술·박원일 대필, 앞의 책(2018): 96; 육군군사연구소, 『봉오동 전투와 청산리 대첩』, 2020: 73).

강 건너편의 일본군이 신민단군을 발견하고 사격을 개시하면서 전투가 시작됐고, 접전 끝에 일본군을 격퇴하는 데 성공했다.

그런데 당시 『독립신문』 및 『동아일보』 등에서는 새불 전투 당시 신민단군이 두만강을 건너 조선 내지에까지 침입하여 현병보초소를 공격했다고 보도했다.¹³⁾ 이에 따라 기존 연구들은 새불 전투 당시 국내 습격이 이뤄진 것으로 서술하고 있다.¹⁴⁾ 그러나 「간도독립군약사」에 따르면 당시 전투를 이끌었던 박승길은 “도강하려 할 때 두만강 대안의 일본군이 신민단군을 발견하고 공격해옴에 따라 작전상 후퇴한 뒤 뒷산에 올라 집중 사격을 가했다”고 회고한 바 있다.¹⁵⁾ 요컨대 박승길이 이끄는 신민단군은 두만강을 건너지 않고 새불(삼둔자) 부근에서 일본군과 전투를 치렀다는 것이다. 전투 당사자의 회고라는 점을 고려하면 박승길의 회고가 신빙성이 높다고 판단된다. 후술하겠지만 박승길은 새불 전투 당시 자신의 공적에 대해 다소 과장된 회고를 남겼는데, 만약 두만강을 건너 국내로까지 진격해 현병보초소를 습격하는 일이 있었다면 이를 기록하지 않을 이유가 없다.

세 번째로 봉오동 전투 당시 ‘의군부(의군단)’의 참전 사실이다. 기존 연구에서는 봉오동 전투에 대해 대한북로독군부(大韓北路督軍府)와 신민단이 봉오동 골짜기로 침입한 일본군을 매복·기습하여 섬멸한 전투로 설명해왔다.¹⁶⁾ 대한북로독군부는 봉오동 전투 직전 군무도독부(軍務都督府: 부장 최진동)·국민회 군무위원회(軍務委員會: 위원장 안무)·정일제1군사령부(征日第一軍司令部: 사령관 홍범도)가 통합되면서 출범한 독립군 단체이다

13) “國境方面的 排日派侵入詳報”, 『동아일보』(1920년 6월 20일); “北嶺島에 在한 我獨立軍의 戰鬪情報”, 『독립신문』(1920년 12월 25일).

14) 박민영, 「독립군의 편성과 독립전쟁」, 『신편 한국사』 48, 국사편찬위원회, 2002: 216-217; 앞의 책.(2020): 74.

15) 박승길 구술·박원일 대필, 앞의 책(2018): 96.

16) 장세윤, 『중국 동북지역 독립운동사』, 선인, 2021: 235.

(삼단연합).¹⁷⁾

그러나 박승길은 해당 단체들 외에도 의군부(의군단)가 참전한 사실을 밝히고 있는 것이다.

“신민군은 제1차와 제2차로 전쟁한 열이 난 군이라 봉오동 동쪽 산 입구 첩코봉에 진을 치고, 서북방 고지는 홍범도군, 동서산 고지엔 의군부군과 독군부군이 각각 진을 치고 있었다.”¹⁸⁾

이때 홍범도군을 독군부군과 별개의 부대인 것처럼 구분한 까닭은 홍범도군이 삼단연합 당시 북로독군부 산하 북로정일제1군 사령부(北路征日第一軍司令部: 사령부장 홍범도)로 개편되긴 했으나 일종의 ‘외번(外藩)’ 격으로서 지휘명령권이 북로독군부장이나 국민회장 누구에게도 속하지 않았기 때문으로 보인다.¹⁹⁾

의군부는 공교회 회원들로 구성된 단체로, 대한제국 간도관리사 출신 이범윤을 총재로 하고 있었다. 이들은 주로 유교사상을 신봉하는 의병 출신들이었다. 박승길은 “봉오동 전투에도 일부 군대가 참가하여 一高地에서의 역할이 컸다”며 의군부의 참전 사실을 거듭 언급하고 있다.²⁰⁾

17) 『北間島지역 獨立軍團名簿』, 국가보훈처, 1997: 256-262.

18) 박승길 구술·박원일 대필, 앞의 책(2018): 97.

19) 『北間島지역 獨立軍團名簿』, 국가보훈처, 1997:256-262.

20) 박승길 구술·박원일 대필, 앞의 책(2018): 102.

〈그림 4: 「간도독립군약사」탈초본 中 봉오동 전투를 서술한 부분〉

안산에서 산길을 후퇴하여 온 부하의 급보를 받은 신민단군사령관 朴昇吉은 洪範圖 장군과 전략을 수립하고, 이 지구에 있는 각 단체군인들과 민간인 전체를 산 위에 올리고, 신민군은 제1차와 제2차로 전쟁한 열이 난 군이라 봉오동 동쪽 산 입구 첩코봉에 진을 치고, 서북방 고지는 洪範圖軍, 동서산 고지엔 義軍部軍과 督軍部軍이 각각 진을 치고 있었다. 1개 연대병력을 가진 羅南 19사단 부대가 미명이라 부락을 향하여 돌격하매, 독립군은 모르고 잠자는 줄만 알고 주력부대 전부가 마을 중심지에 도착하였을 때, 新民團軍은 일본군 후방 첩코봉이라 先射擊 명령을 내리자 각 단체는 일제히 총사격을 하여 日軍은 안심하고 완전 점령한 줄만 알았던 것이 비오듯 내리 쏘는 총탄에 갈 바를 못 잡고 산산이 흩어져 대부분 세력이 분쇄되자, 일부 패전병은 琵琶谷 평지로 후퇴하고 일부 패전병은 풀 속을 타서 산에 오르다가 첩코봉에 있던 신민단군과 單兵接戰이 되었다. 이 찰나 날은 밝아 青天白日이 된 것이 한 점의 暗雲이 飛來하더니 이 골짜기에 폭우를 내리부어 일군은 갈 바를 모르고, 패전병은 비파곡 산정을 타서 후퇴하다가 평지로 가던 패전병과 서로 독립군인 줄 오인하고, 비파곡에서 자기들끼리 교전되어 전멸 상태에 이르렀다.

네 번째로 ‘훈춘사건’에 대한 새로운 증언이다. 한국 학계에서는 훈춘사건에 대해 어떻게 서술하고 있는가? 일제가 독립군 토벌을 위한 출병의 구실을 만들기 위해 중국의 마적 장강호(長江好)를 금전으로 매수한 뒤, 그들에게 훈춘의 일본영사관을 습격하도록 사주했다는 ‘일제 사주설’이 정설처럼 받아들여져 왔다.²¹⁾

그러나 최근에는 이에 대해 회의적인 입장을 취하거나 정면으로 반박하는 연구 성과들이 나오고 있다. 박정현은 훈춘사건을 사주했다는 직접적인 증거가 없는 상황에서 일본의 조직적 사주를 단정하기 어렵다는 주장을 내놨다.²²⁾ 장성규는 일본의 사주에 의해 벌어진 사건이 아닌, 중국 마적단의 일반적인 약탈 사

21) 박민영, 「독립군의 편성과 독립전쟁」, 『신편 한국사』 48(2002): 221-222.

22) 박정현, 「璦春事件과 중국정부의 대응」, 『인문학연구』 130, 충남대학교 인문과학연구소, 2023.

건으로 그 성격을 정의했다. 한편 일본 당국은 해당 사건에 한국인 항일세력이 가담했다고 단정함으로써, 간도 출병의 명분으로 삼았지만, 장성규는 한국인 항일부대가 연루됐을 가능성은 희박하다고 주장한 바 있다.²³⁾

그런데 「간도독립군약사」의 한민회(군민회) 관련 서술에서 훈춘사건과 관련한 대단히 중요한 기록이 보인다. 한민회가 “훈춘영사관 소실은 한국독립군 만행”이라 지적했다는 기록이다. 그리고 당시 훈춘에는 한민회와 신민단이 있었다는 사실을 부연하고 있어 두 단체가 훈춘사건에 개입했을 가능성을 시사한다. 다소 충격적인 증언인데, 구체적인 서술이 이어지고 있지 않아 아쉬움이 남는다.

사실 훈춘사건 당시 한국 독립군이 개입했다는 증언은 이미 철기 이범석(李範奭)이 자신의 회고록 『우등불』을 통해 한 바 있다. 이범석은 “지방 보위단과 일부 애국 청년들이 한국 지사 10여 명과 더불어 훈춘 일본영사관을 습격하여, 저항하는 일본 경찰 30여 명을 살해하고, 영사관 창고 안에서 만주 침략의 명확한 물증인 대량의 무기를 색출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이다.²⁴⁾

이범석의 증언에 더하여 박승길의 회고에서도 비슷한 증언이 나왔다고 한다면, 훈춘사건의 일제 사주설은 더 이상 설득력이 없다고 봐야 하지 않을까. 더 나아가 두 사람의 기록은 훈춘사건에 한국 독립군이 개입했을 가능성을 시사하고 있어 훈춘사건 연구의 새로운 쟁점을 제시하고 있다.

23) 장성규, 「1920년 ‘輝春事件’과 일본군의 ‘間島出兵’」, 『한국민족운동사연구』 106, 한국민족운동사학회, 2021.

24) 철기이범석장군기념사업회, 『우등불』, 백산서당, 2016: 33.

4. 몇 가지 문제점

물론 회고록의 특성상 실제 사실보다 다소 왜곡·과장된 서술이 군데군데 보이는 탓에 100% 그대로 받아들이기 어려운 부분들도 있다.

대표적으로 두 가지 사실을 지적하고자 한다. 먼저 박승길은 새불 전투(삼둔자 전투)에서 부하 20명을 이끌고 일본군 19사단 1개 대대 병력을 상대로 전투를 벌여 300명의 전사자를 냈다고 회고했으나 이는 매우 과장된 주장으로 보인다. 실제로 새불 전투는 4일부터 6일까지 총 3차례에 걸쳐 치러졌는데, 신민단이 참전했던 1~2차 전투를 보면 일본군의 병력은 300명은커녕 50명도 되지 않는 소수에 불과했다.

1차 전투 당시 신민단이 상대했던 병력은 강양동(江陽洞)을 지키던 헌병 1소대 병력으로 헌병군조 후쿠에 산타로(福江三太郎)가 인솔하고 있었다.²⁵⁾ 뒤이어 벌어진 2차 전투 당시 독립군과 맞붙었던 병력 역시 니이미 지로(新美二郎)가 이끄는 남양수비대(南陽守備隊) 병력 16명(혹은 17명)과 강양동에 있던 하사척후와 헌병경찰관 기타 파견대 병력 14명에 불과했다.²⁶⁾ 설사 병력수에 있어서 일제의 의도적인 왜곡이 있었다 하더라도 애초에 20여명 정도밖에 안 되는 병력으로 300명을 사살시켰다는 주장은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렵다. 이는 박승길이 자신의 공적을 다소 과장되게 말했거나, 시간이 지나며 기억에 오류가 생긴 것으

25) “북간도에 잇는 우리 독립군의 전투정보(1)”, 『신한민보』(1921년 2월 3일).

26) “國境 對岸에 武裝團이 襲來”, 『매일신보』(1920년 6월 10일); “國境方面의 排日 派侵入詳報”, 『동아일보』(1920년 6월 20일).

로 봐야할 것이다.

한편으로 봉오동 전투 당시 박승길이 홍범도와 함께 전투를 진두지휘한 것처럼 묘사한 데 대해서도 검증이 필요하다.

“단기 4253년 4월 19일 봉오동에 도착하자 홍범도 장군과 작전 계획을 수립하고 전 독립단체(신민단군, 홍범도군, 의군부, 도독부)에 작전태세를 취하고, 대기명령을 발하고, 지방민에게도 계엄령을 발하고, 만반준비를 하고 있었다.”²⁷⁾

“신민단군사령관 박승길은 홍범도 장군과 전략을 수립하고, 이 지구에 있는 각 단체군인들과 민간인 전체를 산 위에 올리고, 신민군은 제1차와 제2차로 전쟁한 열이 난 군이라 봉오동 동쪽 산 입구 첩코봉에 진을 치고, 서북방 고지는 홍범도군, 동서산 고지엔 의군부군과 독군부군이 각각 진을 치고 있었다. 1개 연대 병력을 가진 羅男 19사단 부대가 미명이라 부락을 향하여 돌격하매, 독립군은 모르고 잠자는 줄만 알고 주력부대 전부가 마을 중심지에 도착하였을 때, 신민단군은 일본군 후방 첩코봉이라 선사격 명령을 내리자 각 단체는 일제히 총사격을 하여...”²⁸⁾

회고만 놓고 보면 마치 박승길이 홍범도와 함께 작전 계획을 수립한 뒤, 자신의 사격 명령에 따라 모든 독립군 단체가 사격을 개시한 것처럼 회고하고 있다. 물론 그가 독립군 연합의 한 축을 담당했던 것은 사실이나, 박승길에게 전체 부대의 지휘명령권이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애초에 신민단군은 대한북로독군부의 지휘체계에도 포함돼 있지 않았다.

특히 박승길의 회고에서 최진동의 역할에 대한 언급이 없는 것은 회고의 신빙성을 의심케 한다. 최진동은 명목상 통합 대한

27) 박승길 구술·박원일 대필, 앞의 책(2018): 96.

28) 박승길 구술·박원일 대필, 앞의 책(2018): 97.

북로독군부의 수장이었다. 이에 따라 전투 당시 부관 안무(安武)와 함께 동북산(東北山) 서쪽 사이 최고봉(最高峯) 독립수(獨立樹) 아래 총지휘소를 설치해놓고 전투를 치렀다.²⁹⁾ 특히나 봉오동 일대는 최진동의 소유지였다. 명목상 최고지휘관이었던 데다가, 봉오동의 지형지물에 대해 누구보다 훤히 파악하고 있었을 최진동이 작전 계획 수립에 참여하지 않았다? 이는 풀리지 않는 의문이다.

사소한 오류도 있다. 대표적으로 철혈광복단(鐵血光復團) 단원들이 조선은행 자금 15만 원을 탈취한 ‘간도 15만원 사건’의 발생일자를 1919년 3월 하순으로 기록해둔 것이다. 해당 사건은 1920년 1월에 벌어진 일이었다.³⁰⁾ 이는 오랜 시간이 흐르면서 박승길 본인의 기억이 흐려진 탓으로 봐야 할 것 같다.

5. 맺음말: 자료의 활용 가치에 대해

앞서 지적한 바와 같이 회고록 특유의 과장 및 왜곡 그리고 의문점들이 일부 발견되고 있기에 「간도독립군약사」를 100% 그대로 수용하는 것은 위험하다. 그렇다고 하여 사료적 가치를 폄훼할 수는 없다. 이는 봉오동 전투에 직접 참전했던, 북간도 지역 독립군 단체를 이끌던 지휘관의 구술 기록이라는 무게감 때문이다.

자신의 공적과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는 조금 과장된 부분이 있는 듯하지만, 그 외의 사실들에 대해서는 신뢰할 만한 가치가

29) “北嶺島에 在한 我獨立軍의 戰鬪情報”, 『독립신문』(1920년 12월 25일).

30) 반병률, 「간도(間島)15만원사건의 재해석」, 『역사문화연구』 12, 한국외국어대학교 역사문화연구소, 2000.

높다고 판단된다. 예컨대 박승길은 1920년 10월 최진동이 일본군의 간도 토벌을 피해 나자구(羅子溝) 일대로 이동했을 당시, 일본군 토벌대와 마주했지만 나자구 일대에 거주하는 동포들에게 불뚱이 튕까봐 교전 없이 후퇴했다고 증언하고 있다.³¹⁾ 이는 실제 일본 측 기록과 교차 검증을 통해 사실로 확인됐다.³²⁾

「간도독립군약사」는 기존 봉오동 전투 관련 연구들이 일본 측 기록에 의존하고 있다는 사료적 한계를 보완할 수 있다는 점에서 무척 귀한 사료라고 할 수 있다. 일본 측 기록은 대부분 밀정들에 의해 보고된 첩보문서들로, 사실과 거짓이 뒤섞인 부정확한 정보들이 뒤섞여 있다. 특히 그동안 연구자들은 봉오동 전투 당시 일본군 토벌대가 기록한 「봉오동부근전투상보」(鳳梧洞附近戰鬪詳報)를 적극적으로 활용해왔는데, 최근에는 병력 숫자나 사상자 숫자의 오류를 지적하며 기록을 있는 그대로 신뢰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되기도 했다.³³⁾

그러한 점에서 본 사료가 앞으로 봉오동 전투를 비롯한 독립전쟁사 연구에 있어 적극적으로 활용되길 바란다. 특히나 필자는 「간도독립군약사」를 분석하는 과정에서 봉오동 전투에 관한 서술 분석에만 집중했기에, 분명 놓치고 있는 부분도 있을 것이라 생각된다. 그러므로 보다 많은 연구자들이 해당 자료에 대해 다각도로 분석을 시도한다면 필자가 밝혀내지 못한 새로운 사실 혹은 오류들을 추가적으로 밝혀낼 수 있으리라 기대한다. 한편으로 필자가 본고에서 쟁점으로 제시한 부분들에 대해서도 시원하게 답을 내려줄 수 있는 연구가 나오기를 고대한다.

다만 아쉽게도 「간도독립군약사」의 원본은 아직까지 한 번도

31) 박승길 구술·박원일 대필, 앞의 책(2018): 102.

32) 김경준, 앞의 논문(2023): 327-328.

33) 이상훈, 「‘봉오동부근전투상보’를 통해 본 봉오동전투」, 『한국독립운동사연구』 72, 독립기념관 한국독립운동사연구소, 2020.

공개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다.³⁴⁾ 2018년 탈초본으로 그 내용이 공개됐지만, 책자 자체가 비매품이기에 탈초본의 존재 자체도 잘 알려지지 않은 것 같다. 어쩌면 이러한 이유로 연구자들이 「간도독립군약사」를 활용할 생각을 하지 못했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든다.

현재로서는 한국학중앙연구원에서 내놓은 탈초본만으로 연구를 진행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³⁵⁾ 필자 역시 논문을 쓰면서 원본을 보지 못했다는 점이 늘 아쉬움으로 남는다. 언젠가 원본이 공개되어 독립운동사 연구자들이 보다 폭넓게 활용했으면 하는 바람을 드러내본다.

34) 한국학중앙연구원 장서각 홈페이지에서도 자료 소장 여부가 확인되지 않아 열람이 불가능한 것으로 보인다.

35) 원본은 볼 수 없지만 탈초본의 경우 교보문고에서 E-Book 서비스로 무료 열람이 가능하다.